

# 경기지역 산업보건의 허브, 경기산업보건센터



박성원 사무국장



‘KBS 수원센터’ 앞 경기산업보건센터를 방문했다. 현재는 KBS 수원센터를 찾고 경기센터를 찾는 것이 더 쉽다. 앞으로는 경기산업보건센터 앞 KBS 수원센터가 되기를 기원한다. 사실, ‘경기산업보건센터’가 ‘수원센터’가 아니라 ‘경기센터’로 이름을 정한 것은 수원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활동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라는 의미이다. 그 결과로 2001년 안산산업보건센터를 독립시켰다.

경기센터는 1992년 개소했다. 개소와 동시에 1992년에 일반·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을 받았다. 2004년에 현재의 위치,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26로 이전했다. 경기센터는 미디어시티빌딩 5층 전관과 3층, 6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5층은 건강진단 공간과 건강진단팀, 환경위생팀이 자리 잡고 있다. 3층은 보건관리팀이 있고, 6층은 운영지원팀과 사무국장실이 있다. 경기센터는 총 84명이 근무하고 있다.

건강진단팀





환경위생팀



운영지원팀(왼쪽부터 최봉수 과장, 강보라 사원, 박성원 사무국장, 김한샘 대리, 김진영 팀장)



경기센터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지정한 마약검사 실시 기관'이다. 협회 홈페이지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전진영 건강진단팀장에게 물어봤다. 정부는 2012년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마약검사를 의무화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할 때 받은 건강진단과는 별도로 마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마약검사를 위해 별도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 건강진단에 마약검사를 포함시킨 것이다.



전진영 건강진단팀장

이제부터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도 믿을 수 있는 경기센터를 선택해달라고 전 팀장은 설명의 꼬리에 달았다. 실제로 2만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믿을 수 있는 건강진단기관으로 경기센터를 선택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뿐만 대기업도 경기센터를 찾고 있다고 강태관 환경위생팀장은 힘주어 말한다.



보건관리팀



강태관 환경위생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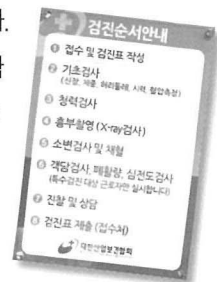
SK하이닉스가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경기센터에 의뢰한다. 1년에 60일, 70여 개 물질을 8000여 건 분석을 한다.



김유희 보건관리팀장

경기센터는 경기지역 안전보건기관과의 네트워크도 탄탄히 다져 왔다. 김유희 보건관리팀장은 “지난 2월 24일에도 광고산에서 지역 내 안전보건관계자,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지원제를 올렸다”고 한다.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근로자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경기센터는 지역 사회공헌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수원시민 건강걷기대회’에 참가뿐만 아니라 별도의 부스를 마련, 지역 주민 건강체크를 실시하였다. 또한 불이원, 동광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성남에 위치한 정신지체 장애인 학교인 성은학교, 성남 혜은학교를 방문해 봉사와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26 미디어시티빌딩 5층  
전화 : (031)267-4400